

APSCC '96 회의 및 전시회를 마치고 ...

김 광 영/APSCC 사무총장

I. 서 언

APSCC(The Asia-Pacific Satellite Communications Council)는 1994. 10. 25 설립된 아시아·태평양지역 위성통신 및 방송협약기구이며 ITU의 전파통신부문에 가입, 승인(95. 7. 6)된 비영리 국제지역협약기구 회원(member)으로서 정보통신부와 같은 주관청만이 가입한 회원(Member)과는 등록 성격상 차별화 된다. 오히려 APSCC 회원 구성은 Inmarsat, Intersputnik과 같은 국제위성통신기구, FSS, GMPCS등의 위성운용사업체, 위성관련 생산업체, 연구기관 및 10여 개국의 주관청이 총망라되어 위성통신에 관한 기탄 없는 회원간의 정보교환, 세미나, 포럼, 전문가 회의, 전문가 양성훈련과정 및 전시회 등을 통하여 이해를 증진하고 ITU를 비롯한 타지역기구(APT 등)와의 문제점 등을 사전 조율함으로써 원만한 주파수할당, 마케팅확보, GII구축의 상호협력, 낙후지역의 공동투자 선도, 관련산업체 및 연구기관에 급변하는 정보의 적기제공 등의 사업으로 각분야에서 매우 활성화되고 있다.

현재 57개 회원 가입주체는 27개 국가로부터 회원등록이 되어 있다. 본 협의회의 본부 사무국은 서울 역삼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비상근 회장(정선중)과 사무총장(김광영) 및 직원(5명)이 상근하고 있다. 비영리 기구인 본 협의회의 예산은 회원사의 연회비와 사무국을 유치한 호스트

국가(정통부)가 부족 예산 대부분을 지원한 특별 기금으로 이사회가 제시하는 계획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II. APSCC '96 회의 및 전시회 일정

금번 이벤트는 '96. 11. 6~8(3일간) 기간중의 워크숍과 전시회 이외에도 11. 5일에 개최된 APSCC 정기 이사회와 총회, 그리고 11. 9일에 현대전자(이천공장)의 산업시찰과 용인의 민속촌 관람을 식후행사로 종료하였다.

금번 이벤트에 참석, 참관한 등록인원은 26개 국가로부터 260명, 전시장 참관자를 포함하면 약 1000명을 상회하는 실적으로 이 통계는 불과 6개월 전에 본 협의회가 주체한 ITU Resolution-18을 위한 제 3지역 포럼의 등록인원 100명에 비교하면 급증된 추세를 엿볼 수 있었다.

개회식은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정통부 차관 환영사와 ITU 통신표준국장의 기조연설로 시작되었고 전시장 개장식 테이프컷팅에는 정통부 차관, 한국통신 부사장, 윤동윤 전정통부 장관이 본 협의회 고문 자격으로 모두 내외빈 9명이 참석하였다.

III. 위성 관계 거물급 총집결 열전

우선 강사 구성을 살펴보면 총 67명중 60명이 외국전문 초빙강사(박사급)로 되었고 3개 강의

실로 주제별로 분산 열강하였다.

과정 내용은 궤도·스펙트럼자원 이용과 개발, 저궤도 서비스, 지구국 첨단기술, 위성통신서비스 추이, 아·태지역서비스계획, 지구국과 위성 서비스응용, 마케팅추세, 신지역 서비스, 광대역통신 세계화, FSS/BSS 중계기 응용, Ka 밴드 기술, 디지털 DBS, GII, 위성통신 등으로 대별되고 소제목 67개로 강의가 진지하게 진행되었다. 주요 인사로서는 ITU 표준국장, ICO 회장, NASDA 단장, 이리디움 회장, 글로벌스타 부사장, Orbcomm 사장, 몽골통신공사 사장, 중국장정발사체 사장, 인도네시아 ACeS 사장, 인도네시아 셀룰러 사장, 텔레데식 부사장, UN 우주연구관, 필리핀 위성체 사장, 일본 SCC 부사장 등 위성산업체의 최고 책임자들이 열강해 주었다. 가장 관심 있는 강의는

「Big LEO」분야로서 강의실이 만장하여 일부는 기립상태로 수강할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 한편 전시장은 당초 27개 업체가 참가의사를 보였으나 스웨그랜드호텔(2층)의 장소관계로 18개 업체로 한정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국내 9개 회사와 해외 9개 회사로 50%씩 공평하게 할애하였다. 전시 내용은 발사로켓용역, 지구국장비, 안테나, DBS 수신장비, 위성 S/W, LEO, MEO의 GMPCS 관련 계획 등이 주종이었다. 참가 업체명은 에이스 안테나, 하이게인 안테나, 미루통상, 한국통신, 대우통신, LG전자, 아남전자, 아리안스페이스, 장정공사 발사체, 휴즈 커뮤니케이션, 미라라이트 위성통신, ICO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글로벌스타(현대전자/데이콤), 록히드마틴 위성통신, 버텍스안테나, Asia-Pacific 위성출판사, Via Satellite출



▲ APSCC '96 전시회 테이프 커팅

판사 등이 있으며 규모에 따라 규정부스(3×3m)를 1개 또는 2개씩으로 성황리에 운영하였다. 특히, 국내 중소기업체에 외국인의 많은 상담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홍보 부족으로 뒤늦게 해외에서 찾아온 많은 업체들은 다음 기회에 사전통보를 희망하면서 강의 자료(Proceeding)만 구입하고 전시장에 거행된 송별파티에서 석별의 정만을 남겼다.

IV. 오찬 스피치 과외수업

꽤 짜여진 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오찬 시간 중에도 특강으로 시간을 할애하여 돋보였다. 첫째날 ICO 회장 오찬 중에 "NASDA의 우주개발 국책수행," 둘째날 신세기 사장 오찬 중에 "중국의 향후 우주기술과 산업전망" 및 셋째날 하이게인 사장 오찬 중에는 "글로벌위성전도 현재와 미래"라는 Via Satellite 편집국장 상세보고가 곁들여졌다. 각날 만찬은 한국통신, 데이콤 그리고 APSCC 환송 카테일파티가 화기에 애한 전시장 분위기에서 아쉬운 석별을 늦추어가면서 2 시간동안 이어졌고 이번 행사의 조직과 운영, 효과 등을 과찬 해주었으나 APSCC의 한사람으로서 벽찬 두 가지 행사 진행에 다소 무리가

있었고, 호텔 장소협소 등으로 청중의 편익에 소홀히 한 점을 부끄럽게 생각할 뿐이다.

기간중 많은 토픽으로 강의와 질의응답이 있었으나, 한 예를 들면 GII(범세계정보기반) 구축은 고성능 컴퓨터광대역망, 멀티미디어망, 쌍방향 TV망에 디지털화, 대용량화가 가미되는 일환으로 위성을 통한 GMPCS(GMPC by Satellite) 사업이 결국 GII 조기완성에 일조 하는 수단이지만, 업존하는 각국 통신정책과 주파수배정 규정을 관장하는 서로 다른 주관 부서간의 상호협조와 타국과의 월경하는 망서비스공유로 이득의 분배원칙등 오히려 기술적인 연구개발보다 선결과제인 통신정책의 국제적 표준화가 더욱 시급하다는 것이 사안으로 부각되었다. 특히 선진국의 개인회사가 GMPCS의 단계별 추진 LEO/MEO/HEO 위성사업을 초기에 장악할 때 후진국은 10년 이후에는 PSTN의 by-pass등 세입누수의 불이익이 초래되므로 현시점이 선후진 국가간의 이해와 협조가 선행되고, 특히 낙후지역에 기본통신이라도 지원하는 특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선약을 보장받지 못할 경우 향후 서비스와 공개 마케팅에는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으로 공감하고있다. 아·태지역에서 선진개발국인 일본의 국책 위성우주계획 단기 투자비만 해도 수조 원을 상회하며 후진개발도상국인 중국 까지도 발사체의 상용화 신뢰도가 높고 신장되고 있어 한반도 좌우의 양대국의 위성사업 규모에 비하여 볼 때 우리의 사업은 너무나 미미할 정도였으나 현 정부가 제시한 최근의 위성 장기발전 계획으로 다소나마 위안이 되고있다.

V. 정기이사회와 총회 주요안건

정기이사회와 총회는 11. 5(월) 오전과 11. 6(화) 오후에 각각 거행되었다. 사무총장의 '95~'96 과년도 실적과 '97~'98 차기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에 대한 낭독 이후 진지한 토의 끝에



▲ APSCC '96 Conference 개최식

다음과 같은 주요 안건을 처리하였다.

주요 프로젝트는 차기 년도인 '97년 Expert Group Meeting(3월 초순), Intensive Training Course(5월 중순), Regional Forum(10월 하순) 그리고 1998년도 Standardization Expert Meeting(3월), Intensive Training Course(5월) 그리고 APSCC '98 Conference and Exhibition(10월)이 결정되었다.

그리고 '97년부터 membership fee(연 1회)는 현 \$2000에서 \$3000으로 인상하기로 어렵게 합의를 도출하여 사무국을 유치한 대한민국의 지원금 50% 배정율을 다소나마 감량할 수 있게 되었다. 끝으로 APSCC 차기회의 기간의 신입회장은 현재 ETRI 위성통신기술연구단 단장으로 재임중인 정선종씨가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재선 공인되었다.

VI. 맺음말

창립된지 불과 2년여만에 APSCC는 정통부의 꾸준한 정책지도와 한국통신, 데이콤 등의 각별한 특별기금 예산지원으로 당초계획을 원만하게 수행하므로써 APSCC를 통하여 국위를 전세계에 펼쳐 보여주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최근 각종 일간신문사, 월간지, 방송사 등의 홍보 역시 큰 힘이 되었음을 간과할 수 없다. 매번 회의 기간중 오찬 또는 만찬을 베풀어주신 각사업체와 어려운 여건에서도 선뜻 전시장에 참여 해주신 기업체에게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금번 회의중 아쉽게 느껴졌던 점은 등록금이



▲ APSCC '96 Conference Session 전경

비회원 경우 520,000원으로 개인이 부담하기 다소 어려워 강의 자료(proceeding)만 구입하고 입장 못했던 대다수의 국내 교수 및 대학생들에게 특별한 배려를 못한 점과 몇몇 강사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불참한 것이었다.

APSCC가 비영리 협의체이지만 본 이벤트 예산인 1억수천만원의 경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강사들에게 한푼의 사례도 할 수 없었고 살기 어려운 국가 참석자에 대한 저렴한 호텔 알선으로 매일 출퇴근 차량지원까지도 챙겨야 하는 등 5명의 직원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 금번에 참관, 참석해주신 독자를 포함한 여러분들에게 소홀하게 대한 점을 널리 해량해 주실 것을 바라며, 차기행사는 진일보된 운영으로 실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두서없는 글을 맺겠습니다.

● 독자에게 알립니다 ●

APSCC '96 Conference에 대한 Proceeding은 1권(693페이지)과 2권(175페이지)으로 별책으로 제작되어 마련되었습니다. 상기 회의에 참석하실 수 없으셨던 독자들에게 한정분을 판매하오니 필요하신 분께서는 당협의회의 신청하여 주시면 우송하여 드리겠습니다.

APSCC(아·태 위성통신협의회)

Fax : 02-568-8593 Tel : 02-508-4884/5, 557-1133